

일부 지역 대학생의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

김동석^{1*}, 강수원¹, 박지원¹
¹김천대학교 의료경영학과

Survey on smoking for college students in some regions

Dong-Seok Kim^{1*}, Soo-Won Kang¹ and Ji-Won Park¹

¹Department of Medical Management, Gim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를 파악하여 금연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남학생 460명과 여학생 394명, 연구기간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이었다. 조사결과 남학생은 흡연자가 49.3%이었고, 여학생은 8.93%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05), 부모가 흡연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학생의 월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았다(p < 0.05). 금연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흡연자들이 처음 흡연한 때는 고등학교(46.6%), 중학교(35.1%), 대학교(14.9%), 초등학교(3.4%) 순이었다. 연구 결과 규칙적인 흡연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대학생들은 가정적 환경과 금전적 고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여성의 흡연 추세는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대책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figure out the smoking status of college students. The main object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details of smoking statu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allowance and smoking habit and the effect of their parent's smoking.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ward 854 of college student(460 males / 394 females) from 22 to 29 October 2012. According to the research, 49.3% of the males and 8.93% of females were smokers and the smoking group was affected by their allowance and home environment(parental smoking habits). Compared with existing related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hows the continuous increase rate of female smoking. Therefore the publicity and education to college students for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measures are required.

Key Words : Smoking, Amount of smoking to college students, Smoking habit for young

1. 서론

질병의 이환 내지 사망 원인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일제말기부터 1960년대까지는 소화기 및 감염성 질환이 우리나라의 큰 보건문제가이었으나 1970년대부터 점차 비감염성 질환이 문제되고 있다[1-3].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니며, OECD 국가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요인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건강의 위협요소는 대부분 생활행태와 관련된, 흡연, 음주, 비만, 육체적 활동의 결여에 따른 건강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

한 후천적 문제는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받는데, 예컨대 흡연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는 범정부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1965년 42%에서 2009년 16%로 흡연율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4]. 이 외에도 많은 OECD 국가들에서 흡연율 제고를 위한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반면 우리나라의 남성 흡연율은 2010년 40.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OECD의 평균 남성 흡연율 26.0%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5].

폐암과 흡연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점은

*Corresponding Author : Dong-Seok Kim (Gimcheon Univ.)

Tel: +82-16-244-1426 email: kds929@gimcheon.ac.kr

Received January 23, 2013 Revised (1st March 6, 2013, 2nd March 26, 2013, 3rd March 27, 2013) Accepted April 11, 2013

1950년대에 이미 밝혀졌으며[6-9], 이후 폐암[10]·대장암[11]·담배관련(tobacco-related) 암에 관한 보고서[12],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13] 등 담배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많은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다. 즉 담배는 공중보건에 매우 중대한 위협임은 명백해졌다.

우리나라 흡연자들이 하루 한 개비 이상 규칙적으로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21.2세로 보고되었다[14]. 이 연령대는 대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데, 중·고등학교 시절 불규칙하게 흡연을 하던 습관이 또는 미성년자일 때 담배의 구매 등에 제약을 받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규제사항이 해소됨에 따라 규칙적인 흡연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은 활동적이며 호기심이 강하여 자신의 성장이나 사회적 관심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흡연, 음주 등을 경험하게 되며[15], 또한 새로운 대학생들과 관련된 학업, 사회적 활동의 적응 등 대학생은 흡연에 친숙하게 노출되어 있어 흡연 행동의 새로운 시작과 습관적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16], 대학생의 70%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흡연을 하는 사회적 흡연자로, 이 시기는 흡연이 습관화 되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금연 중재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17].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흡연 실태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흡연 실태를 조사한 후, 향후 대학생들의 금연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에 관한 조사로서 2개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5개 대학(4년제 3, 전문대학 2)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제7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18]와 2010 국민건강통계[19]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재 작성하여 병원통계 관련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하여 확정하였다.

학생의 월 용돈은 선행 연구[20,21]와 설문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40만 원 미만”, “40-69만원”, “7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1일 흡연량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흡연자들이 1갑(20개비) 이상은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반 갑 미만은 흡연을 적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9개비 이하”, “10-19개비”, “20개비 이상”으로 구

분하였다.

학생들에게 조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들이 자료수집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설명한 후 동의하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현장에서 설문지를 기입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 조사기간은 2012. 10. 22일부터 2012. 10. 29일까지 하였으며, 회수된 875부 중 무응답이 있거나 상반되는 답이 있는 21부를 제외한 854부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2 자료처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 흡연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담배 소비량, 및 성별과 흡연 여부에 따른 금연 교육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Chi-square)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흡연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흡연한 때, 흡연 동기, 담배 값이 인상될 경우의 태도, 금연을 생각한 경험의 여부, 금연하고자 하는 이유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for 18 Window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 이내에서 양측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연구대상자는 854명으로 남학생 460명(53.90%)과 여학생 394명(46.1%)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unit : person)	
Item	Division	Frequency	%
gender	male	460	53.9
	female	394	46.1
paternal smoking status	non smoking	344	40.3
	light smoking	250	29.3
maternal smoking status	heavy smoking	260	30.4
	non smoking	773	90.5
allowance (10,000 won)	light smoking	43	5.0
	heavy smoking	38	4.4
religion	under 40	533	62.4
	40-69	275	32.2
	over 70	46	5.4
religion	Buddhist	154	18.0
	Protestant	164	19.2
	Catholic	96	11.2
	the rest	440	51.5
total		854	100.0

Note : the rest(atheist and 7 religious minority)

부의 흡연여부는 “피우지 않음”이 344명(40.3%), “조금 피움”이 250명(29.3%), “많이 피움”이 260명(30.4%)이었다. 그리고 모의 흡연여부는 “피우지 않음”이 773명(90.53%), “조금 피움”이 43명(5.0%), “많이 피움”이 38명(4.4%)이었다. 학생의 월 용돈은 “40만원 미만”이 553명(62.4%), “40-69만원”275명(32.25), “70만원 이상” 46명(5.4%)이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종교는 불교 154명(18.0%), 개신교 164명(19.2%), 천주교 96명(11.2%), 불교·개신교·천주교에 속하지 않는 “비해당”이 440명(51.5%)이었으며, “비해당”에는 “무종교”가 433명이었고 “기타 종교”는 7명이었다.

3.2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조사대상자와의 카이제곱(Chi-square)검정 결과는 “성별”, “부의 흡연 여부”, “모의 흡연 여부”, “부의 음주 여부”, “학생의 용돈”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Table 2].

흡연 여부를 보면 남학생은 흡연자 49.3%이었고, 여학생은 흡연자가 8.93%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흡연자가 월등히 높았다. 부의 흡연여부와 학생의 흡연여부는 부가 “담배를 피우지 않음”일 때 학생은 22.4%가 흡연자이었으며, 부가 “조금 피움”일 때 학생 흡연자는 34.0%이었고, 부가 “많이 피움”일 때 학생 흡연자가 38.5%로 부의 흡연 여부와 학생의 흡연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모의 흡연과 학생의 흡연도 모가 “피우지 않음”일 때 학생은 흡연자가 28.35, “조금 피움일 때 51.2%, “많이 피움”일 때 55.5%로 모가 흡연을 하지 않을 때가 학생 흡연자

가 월등이 적었다. 학생의 월 용돈과 학생의 흡연은 월 용돈이 “40만 원 미만”일 때 흡연자가 25.3%, “40-69만원”일 때 37.5%, “70만 원 이상”일 때 52.2%로 학생의 월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3.3 대학생들의 담배 소비량

대학생들의 1일 담배 소비량(꺠련)은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조사대상자와의 카이제곱검정(x²-test) 결과는 “성별”, “학생의 용돈”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나(p < 0.05), 부의 흡연 여부”, “모의 흡연 여부”, “학생의 종교”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able 3]. 남학생은 “9개비 이하”가 28.6%, “10-19개비” 45.4%, “20개비 이상 26.0%이였으며, 여학생은 “9개비 이하”가 51.4%, “10-19개비” 31.4%, “20개비 이상” 17.1%로 여학생은 9개비 이하가 50%를 넘었다. 그리고 학생의 월 용돈과 흡연량은 “20개비 이상” 피우는 학생은 “40만원 미만”이 17.2%, “40-69만원”이 32.7%, “70만원 이상”이 33.3%로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량이 많았다.

3.4 대학생들의 금연교육에 관한 태도

성별과 흡연 여부에 따른 금연 교육에 대한 태도는 Table 4와 같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남학생은 “필요” 34.6%, “불필요” 32.8%, 전혀 불필요” 17.85, 꼭 필요” 14.8% 순이었으며, 여학생은 “필요” 35.5%, “불필요” 31.0%, 꼭 필요” 22.8%, “전혀 불필요” 10.7% 순이었다.

[Table 2] Smoking status of college students

Item	Division	Frequency		x ²	p-value
		non-smoking	smoking		
gender	male	233(50.7)	227(49.3)	163.395	.000*
	female	359(91.1)	35(8.9)		
paternal smoking status	non smoking	267(77.6)	77(22.4)	19.832	.000*
	light smoking	165(66.0)	85(34.0)		
	heavy smoking	160(61.5)	100(38.5)		
maternal smoking status	non smoking	554(71.7)	219(28.3)	21.286	.000*
	light smoking	21(48.8)	22(51.2)		
	heavy smoking	17(44.7)	21(55.3)		
allowance (10,000won)	under 40	398(74.7)	135(25.3)	23.105	.000*
	40-69	172(62.5)	103(37.5)		
	over 70	22(47.8)	24(52.2)		
	Buddhist	102(66.2)	52(33.8)		
religion	Protestant	126(76.8)	38(23.2)	7.550	.056
	Catholic	71(74.0)	25(26.0)		
	the rest	293(66.6)	147(33.4)		

* : p < 0.05

Note : the rest(atheist and 7 religious minority)

[Table 3] Tobacco consumption of college students(cigarette/day)

Item	Division	Frequency			x ²	p-value
		9 and less	10~19	20 and more		
gender	male	65(28.6)	103(45.4)	59(26.0)	7.286	.026 *
	female	18(51.4)	11(31.4)	6(17.1)		
paternal smoking status	non smoking	23(29.9)	38(49.4)	16(20.8)	3.229	.520
	light smoking	30(35.3)	36(42.4)	19(22.4)		
	heavy smoking	30(30.0)	40(40.0)	30(30.0)		
maternal smoking status	non smoking	73(33.3)	99(45.2)	47(21.5)	8.104	.088
	light smoking	5(22.7)	8(36.4)	9(40.9)		
	heavy smoking	5(23.8)	7(33.3)	9(42.9)		
allowance (10,000 won)	under 40	44(32.8)	67(50.0)	23(17.2)	9.680	.046 *
	40-69	33(31.7)	37(35.6)	34(32.7)		
	over 70	6(25.0)	10(41.7)	8(33.3)		
religion	Buddhist	14(26.9)	25(48.1)	13(25.0)	1.560	.955
	Protestant	14(35.9)	17(43.6)	8(20.5)		
	Catholic	8(33.3)	9(37.5)	7(29.2)		
	the rest	47(32.0)	63(42.9)	37(25.2)		

* : p <0.05

Note : the rest(atheist and 7 religious minority)

[Table 4] Attitudes toward smoking education according to gender and smoking status

Item	Division	Frequency					x ²	p-value
		positively necessary	necessary	unnecessary	completely unnecessary	total		
sex	male	68(14.8)	159(34.6)	151(32.8)	82(17.8)	460(100.0)	5.245	.002 *
	female	90(22.8)	140(35.5)	122(31.0)	42(10.7)	394(100.0)		
smoking status	n-s	126(21.3)	210(35.5)	191(32.3)	65(11.0)	592(100.0)	4.902	.000 *
	smoking	32(12.2)	89(34.0)	82(31.3)	59(22.5)	262(100.0)		
total		158(18.5)	299(35.0)	273(32.0)	124(14.5)	854(100.0)		

* : p <0.05

Note : n-s(non smoking)

흡연 여부에 따른 금연교육에 대한 생각은 비흡연자의 경우 “필요” 35.5%, “불필요” 32.3%, “꼭 필요”21.3%, “전혀 불필요“ 11.0% 순이었으며, 흡연자는 “필요” 34.1%, “불필요” 31.3%, “전혀 불필요“ 22.5%, “꼭 필요”12.23%로 비흡연자는 금연교육에 긍정적인 비율이 56.8%, 흡연자는 46.2%로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금연 교육에 더 긍정적이었다.

3.5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흡연 실태

현재 흡연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흡연 실태의 항목은 처음으로 담배를 핀 때, 흡연 동기, 금연 생각의 여부로서 그 빈도는 다음과 같았다[Table 5].

처음으로 담배를 피운 때는 흡연자 263명 중 초등학교

때 9명(3.4%)으로 그 중 남학생은 8명(3.1%)과 여학생은 1명(0.4%)이었으며, 중학교 때 92명(35.1%)으로 남학생 80명(30.5)과 여학생 12명(4.6%)이었고, 고등학교 때 122명(46.6%)으로 남학생 105명(40.1%)과 여학생 17명(6.5%)이었으며, 대학교 때 39명(14.9%)으로 남학생 34명(13.0%)과 여학생 5명(1.9%)이었다. 흡연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고등학교(46.6%)가 가장 많았고, 중학교(35.1%), 대학교(14.9%), 초등학교(3.4%) 순이었다.

흡연동기로는 “호기심 때문에” 38.5%, “친구의 권유나 어울리기 위해서” 24.(%,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20.6%,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6.9%, “기타” 5.0%, 선배의 권유 때문에 “4.2% 순이었다.

흡연자에게 금연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Table 5] Smoking status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college students

Item	Division	Gender		total
		male	female	
lighting-up-age	elementary school	8(3.1)	1(0.4)	9(3.4)
	middle school	80(30.5)	12(4.6)	92(35.1)
	high school	105(40.1)	17(6.5)	122(46.6)
	university	34(13.0)	5(1.9)	39(14.9)
the motive for smoking	curiosity	87(33.2)	14(5.3)	101(38.5)
	friends's suggestion	55(21.0)	10(3.8)	65(24.8)
	for stress reduction	50(19.1)	4(1.5)	54(20.6)
	seniors's suggestion	10(3.8)	1(4)	11(4.2)
	in the drinking party	15(5.7)	3(1.1)	18(6.9)
	the rest	10(3.8)	3(1.1)	13(5.0)
plan to quit smoking	have the plan	156(59.3)	28(10.6)	184(70.0)
	don't have the plan	72(27.4)	7(2.7)	79(30.0)
	total	228(86.7)	35(13.3)	263(100.0)

질문에 “금연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70.0%이었으며, “금연을 생각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30.0%이었다.

4. 고찰 및 결론

흡연은 현재 건강에 부담이 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흡연은 비전염성질환(non communicable diseases)으로 인한 사망의 63%를 차지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였다[22].

흡연자들이 규칙적으로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21.2세로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흡연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 조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결과들을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 흡연율에 관하여 남학생의 흡연율이 높다는 결과는 임국환 외(2004)[23], 이민영 외와 권수진 외에서도 도출된 바 있다[24,25].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1)[26] 연구 결과는 남자는 48.1%, 여자는 6.1%로 남학생은 같았고 여학생은 약간 높았다.

부모의 흡연과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본 연구 결과 부모의 흡연여부에서 특히 모의 영향이 자녀의 흡연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도출되었으며(모가 “피우지 않음”일 때 학생은 흡연자가 28.35, “조금 피움”일 때 51.2%, “많이 피움”일 때 55.5%), 이는 광정옥(1995)의 연구 결과 부가 흡연할 때 남학생의 32.0% 부가 비흡연일 때 남학

생의 24.4%가 흡연을 경험했으며, 모의 흡연할 때 여학생의 41.7% 모가 비흡연일 때 여학생의 27.5%가 흡연을 경험하여 부모의 흡연 모두가 영향을 미치나 모가 흡연할 경우 더 크게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27]. 김현철 외(2006)는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흡연율이 높다고 하였다[28].

학생의 월 용돈과 학생의 흡연율은 월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돈의 지출량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흡연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여 한다고 하여 본 결과와 일치하였으며[29], 김현철 외(2006)도 청소년의 용돈이 증가할수록 흡연율은 높았다고 한 연구 결과와 같았다.

본 연구 결과, 성별과 흡연 여부에 따른 금연 교육 태도는 비흡연자의 경우 금연교육에 긍정적인 비율이 56.8%, 흡연자는 46.2%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정옥(1995)의 연구 결과 “금연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비율이 87.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연교육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흡연실태를 조사한 2011년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연구 결과(남자(48.1%)도 높았고, 여자(6.1%)]보다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차이가 더 컸는데, 2008년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12.7%,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1.1%로 1992년의 3.8%와 2.4%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되었다는 결과에 비추어 보면[30], 이러한 증가 추세가 아직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erg et al(201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매일 흡연율(2학년 19.9%, 4학년 8.3%)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31], 학기 초에는 흡연율이 높았다가 학기 말에는 감소하였고 주중보다 주말에 흡연율이 높아졌다[32].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대학생의 흡연예방이나 금연대책을 위하여 대학생에 흡연에 관한 태도 및 생활행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들의 흡연율에 비해 여자 대학생들은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흡연율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 Chassin et al(1981)은 여성이 흡연을 함으로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 관념을 탈피하려는 동기가 내재되어 있어 여성의 흡연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하여[33], 여성 인권의 신장이나 취업의 향상 등 여성 흡연, 특히 젊은 여성의 흡연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로 대학생의 경우에 금전적인 요인이 흡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가 흡연을 정기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담배 가격의 조정을 통한 금연 유도가 대학생들의 경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금연 교육에 관한 부정적인 태도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흡연율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자가 지역 중소도시의 2개 대학의 학생들로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규칙적인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선행 연구에서 추측되었던 미혼 여성의 흡연증가가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흡연율이 과거에 비해 높게 파악되었으며, 흡연자들이 금연교육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이 파악된 것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대학생의 흡연 연구의 자료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대학생의 전국적인 흡연 실태조사, 여대생의 흡연 증가요인 및 대책, 금연 및 흡연교육에 대한 대책, 흡연에 대한 학년별 생활행태 및 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J J. S. Kim, Changes in the cause of death in Korea and Prospects", *Epidemiology and Health*, Vol. 2, No. 2, pp. 155-174, 1989.
 [2] I. S. Kim, Changing Pattern and trends of the 5 Leading Cause of Death in Korea, *J Korean Med Assoc*, Vol.

38, No. 2, pp. 32-45, 1995.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Health and Welfare White Pap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p. 601-628, 2012.
 [4] OECD, Health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pp. 8-9, OECD Publishing, 2011.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ECD Health Data 2012, pp. 105-10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6] R. Doll and A. B. Hill, Smoking and carcinoma of the lung; preliminary report, *Br Med J*, Vol. 30, No. 2(4682), pp. 739-748, 1950.
 [7] E. C. Hammond, D. Horn, Tobacco and lung cancer, *Acta Unio Int Contra Cancrum*, Vol. 9, No. 3. pp. 507-511, 1953.
 [8] A. B. Hill, R. Doll, Lung Cancer and Tobacco, *Br Med J*, Vol. 19; No. 1(4976), pp. 1160 - 1163, 1956.
 [9] R. Doll, A. B. Hill, Lung cancer and other causes of death in relation to smoking; a second report on the mortality of British doctors, *Br Med J*, Vol. 10, No. 2(5001), pp. 1071-1081, 1956.
 [10] S. H. Preston, D. A. Gleit, J. R. Wilmoth, A new method for estimating smoking-attributable mortality in high-income countries, *Int J Epidemiol*, Vol. 39, No. 2, pp. 430-438, 2010.
 DOI: <http://dx.doi.org/10.1093/ije/dyp360>
 [11] I. Vogelaar, M. van Ballegooijen, D. Schrag, R. Boer, J. Sidney, S. J. Winawer, J. D. F. Habbema, A. G. Zaube, How Much Can Current interventions Reduce Colorectal Cancer Mortality in the U.S.?, *CANCER*, Vol. 10, No. 7, pp. 1624-1633, 2006.
 DOI: <http://dx.doi.org/10.1002/cncr.22115>
 [12] M. Bernal, F. J. Gómez, G. Gómez, Trends in cancer mortality in Spain: 1975-2004, *Tumori*, Vol. 95, No. 6, pp. 669-74, 2009.
 [13] OECD, Health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pp. 27-29, OECD Publishing, 2011.
 [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moking Survey of 2011 in the first half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http://www.nosmokeguide.or.kr/policy/policy4_02_list.asp?idx_no=274&searchkey=&search=&gotopage=1&pds_code=S, January 2013.
 [15] D. B. Preston, G. W. Greene, P. A. Irwin, An assessment of college health nursing practice: A wellness perspective,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7, No. 2, pp. 97-104, 1990.
 DOI: http://dx.doi.org/10.1207/s15327655jchn0702_6

- [16] M. Otsuki, B. J. Tinsley, R. K. Chao, J. B. Unger,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smoking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roles of social smoking and smoking motiv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Vol. 22, No. 4, pp. 514-552, 2008.
DOI: <http://dx.doi.org/10.1037/a0012964>
- [17] K. Waters, K. Harris, S. Hall, N. Nazir, Waigandt, Characteristics of social smo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 55, No. 3, pp. 133-139, 2006.
DOI: <http://dx.doi.org/10.3200/JACH.55.3.133-139>
- [18]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7th(2011) Adolescent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Statistics, pp. 331-335,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 [19]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Health Statistics 2010 :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pp. 651-652,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2011.
- [21] K. H. Rhim, J. H. Lee, M. K. Choi, C. J. Kim,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Drinking and Smoking Habits, *Korean Health Researches*, Vol. 30, No. 1, pp. 57-70, 2004.
- [22] H. C. Kim, E. K. Kim, E. S. Choi, Y. J. Kim, H. J. see, J. J. Kim, H. S. Jang, K. S. Shim, S. N. Jeon, Y. H. Kang, H. S. Kang, J. H. Oh, K. S. Cho, S. M. Kwon, The Determinants of Adolescent Smoking by Gender and Type of School in Ko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 39, No. 5, pp. 378-388, 2006.
- [22] World Health Organization, Tobacco Free Initiative (TFI), WHO, <http://www.who.int/tobacco/en/>, January 2013.
- [23] K. H. Rhim, J. H. Lee, M. K. Choi, C. J. Kim,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Drinking and Smoking Habits, *Korean Health Researches*, Vol. 30, No. 1, pp. 57-70, 2004.
- [24] M. Y. Lee, J. H. Yoo, A study on the smoking status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some reg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Vol. 10, No. 5, pp. 917-924, 2010.
- [25] S. J. Kwon, J. H. Kang, N. J. Kim, R. J. Kim, S. Y. Kim, S. I. Kim, G. S. Han, Relationships between Dietary Behaviors with Smoking, Drinking Situation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12, No. 2, pp. 145-153, 2012.
- [26]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Health Statistics 2010 :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pp. 22-23,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2011.
- [27] J. O. Kwak, A Survey on Smoking Status and Its Related Factors for Female Students of A Women's University in Seoul,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Vol. No. 2, pp. 120-138, 1995.
- [28] H. C. Kim, E. K. Kim, E. S. Choi, Y. J. Kim, H. J. Lee, J. J. Kim, H. S. Jang, K. S. Shim, S. N. Jeon, Y. H. Kang, H. S. Kang, J. W. Oh, K. S. Cho, S. M. Kwon, The Determinants of Adolescent Smoking by Gender and Type of School in Ko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 23, No. 2, pp. 379-0388, 2006.
- [29] B. Zhang, C. Cartmill, R. Ferrence, The role of spending money and drinking alcohol in adolescent smoking, *Addiction*, Vol. 103, No. 2, pp. 310-319, 2007.
DOI: <http://dx.doi.org/10.1111/j.1360-0443.2007.02058.x>
- [30] M. K. Seo, Women's smoking behavior: Factors and policy op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o. 172, pp. 59-67, 2011.
- [31] C. J. Berg, L. C. An, J. L. Thomas, K. A. Lust, J. R. Sanem, D. W. SwanI, J. S. Ahluwalia, Smoking patterns, attitudes and motives: unique characteristics among 2-year versus 4-year college students, *Health Education Research*, Vol. 26, No. 4, pp. 614 - 623, 2011.
DOI: <http://dx.doi.org/10.1093/her/cyr017>
- [32] N. J. Cronk, K. J. Harris, S. W. Harrar, K. Conway, D. Catley, G. E. Good, Analysis of smoking patterns and contexts among college student smokers, *Subst Use Misuse*, Vol. 46, No. 8, pp. 1015-1022, 2011.
DOI: <http://dx.doi.org/10.3109/10826084.2010.543746>
- [33] L. Chassin, C. C. Presson, M. Bensenberg, E. Corty, R. W. Olshavsky, S. J. Sherman, Predicting adolescents' intentions to smoke cigarettes, *Journal of Health Social Behavior*, Vol. 22, No. 4. pp. 445-455, 1981.
DOI: <http://dx.doi.org/10.2307/2136684>

김 동 석(Dong-Seok Kim)

[정회원]



- 1988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03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 1989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건정책(보건행정), 공중보건

강 수 원(Soo-Won Kang)

[정회원]



- 1988년 2월 : 한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 1995년 2월 : 한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1986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병원경영, 의무기록

박 지 원(Ji-Won Park)

[정회원]



- 1986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응용통계학 석사)
- 1993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1994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의료정보, 보건경제